

도도동 일원, 농업시설 집적화 추진

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등 위한 국비 34억원 확보 사업 본격화

전주시가 올 한해 항공대 부근 도도동 일원에 농업시설을 집적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건축계획을 시작으로 도도동 일원을 농업 발전을 견인할 미래 농업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농업생산 연구시설과 유통·가공·체형 공간 등 다양한 농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공모를 거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아열대과수 실증시범포 조성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공영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4억 원(총사업비 122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도도동 일원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고소득 작물의 발굴과 재배 확산을 위해 아열대과수 재배 실증포가 조성된다.

또한 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물류·유통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와 작업장, 창고시설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3456㎡)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구축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전주는 물론 전북지역 나머지 13개 시·군과 상생할 수 있는 전라북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 전주지역 농가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안정적 공급체계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농업인의 부가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400㎡ 규모의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도 건립한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 공동이용 가공시설로, △식품 가공을

위한 습식·건식라인 △젤라또 라인 등의 가공시설을 갖추게 된다. 시는 이곳을 통해 농산물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과 상품화를 지원해 시제품 개발부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농업 관련 생산·유통·가공·체험 시설 등이 집적화되면 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도동 일대가 도농복합의 지역 여건에 맞춰 전주시 농업 다변화와 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이끄는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노상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

전주공구거리 40면·전북대 구정문 주변 17면 조성

전주시설공단은 불법주차 근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주공구거리와 전북대학교 구정문 주변에서 노상 공영 주차장을 신규로 운영한다.

지난 5일 시설공단에 따르면, 전북대 앞 노상주차장(17면)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일원 전북대 구정문에서 삼성문화회관까지 192m 구간에, 공구거리 노상주차장(40면)은 완산구 대동로 일원 동양기전사거리에서 삼정와이어 사거리까지 393m 구간에 각각 조성됐다.

공단은 이들 상가 밀집 지역에 공영 주차장이 새롭게 운영되면서 주차 질서 확립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주차 차단에 따른 원활한 차량 흐름, 사고 위험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어서다.

이에 앞서 공단은 효율적인 노상주차장 운영과 이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초 주차장 조성계획 단계부터 여러 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차장 위치와 주차면 수, 운영 시간, 상

가 할인된 판매 방식 등을 정했다.

운영 시간은 전북대 앞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구거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주차 요금은 두 곳 모두 1급지에 해당해 기본 30분에 6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후 15분마다 300원씩 추가된다. 요금 결제는 무인 정산기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주차 시간이 20분 이내일 경우 주차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단은 올 상반기 중 전주시청사 주변 노상주차장도 전주시로부터 수탁, 운영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해외봉사활동

5~19일 인도네시아에 27명 해외봉사단 파견... 족자카르타 초등학교서 교육봉사 등 진행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인도네시아에 27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교육부와 월드프렌즈 코리아 후원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선발된 대학생 24명과 인솔자 3명, 총 27

명으로 봉사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인도네시아로 파견돼 족자카르타에 있는 파퓌2번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와 노력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

다.

구체적으로 봉사단은 족자카르타 현지 초등학교에 찾아가 환경보호, 한국 문화, 보건·체육, 미술·과학 등 4개 과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9월 '45기 WFK 청년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2주간 1차 1·2차 국내 교육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이후 지난 4일부터 1박 2일 간의 3차 교육을 끝으로 해외 봉사 준비를 마치고 곧바로 출국하게 됐다.

최이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매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해가는 자원들의 모습에 대견함과 감사함을 느낀다. 해외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발달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자원들이 안전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공모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몽골과 인도네시아 등 2개국에서 지속적인 해외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18회째 해외봉사활동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인도네시아에 27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한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이 지난 5일 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윤철 전주시의원, 여성기업 성장 기여 공로 감사패

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로부터 받아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이 지난 5일 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회장 안병숙)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는 김 의원이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여성기업의 권익향상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여성기업 성장에 애써주

신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윤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의 활동에 제가 감사한 마음"이라며 "여성기업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주차 문제 해소'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 건축물 없는 미사용 토지 대상 발굴·신청 접수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건축물이 없는 미사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이달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뤄지며, 대지나 잡초지 등의 토지가 설치 대상이며 주차 편의를 위한 노면정리, 안내표지판, 주차선 등의 임

시주차시설이 설치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거 3년간의 협약 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관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

상이 되는 토지 소유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 소유주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17일(수)~1월 18일(목)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라북도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